

환경 단신

1. IMO, 단일선체 유조선과 TBT 규제에 관해 논의<sup>1)</sup>

○ IMO<sup>2)</sup>는 이번 런던에서 열린 환경위원회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의 기존 운항 금지 기한을 2026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긴다는 초안에 합의함

- 이는 EU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제적 규제가 강화된 것
  - EU는 2015년까지 EU 역내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사용 금지를 제안한 바 있음
  - 이번 IMO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만족을 표함

○ 그러나, 선체에 TBT<sup>3)</sup> 함유 도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함

- 지난해 IMO는 2003년부터 선박의 선체에 TBT 함유 페인트의 사용을 금지하며, 2008년까지는 TBT 함유 페인트를 사용한 선박의 운항을 완전히 금지시킬 것에 합의한 바 있음

○ IMO는 2001년 4월에 단일선체 유조선과 TBT 규제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임

- 특히, 단일선체 유조선 규제에 관해서는 이번에 합의된 2017년 안이 EU의 일방적인 사용 금지 안인 2015년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IMO 관계자들은 해양과 항구의 환경보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활동 및 선박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대환경연구소, Eco-Brief, 2000년 24호)

1) 2000년 10월 10일, 에코브리프 23호, 'EU,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규제 강화 제안', 2000년 10월 10일, 에코브리프 23호, 'UN, 선박에 유해 TBT 함유 도료 사용 금지 제안' 참조  
2)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약자이며, 해양안전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UN 특별기구임  
3) Tributyltin : 선박이나 漁具 등에 사용되는 방오도료의 생물탈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선체로부터 해양환경으로 조금씩 용출되어 해양 퇴적층에 농축되며, 특히 대형 선박의 출입이 잦은 항구 주변에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극히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매우 유독할 뿐만 아니라 생물농축성이며, 동물의 홀몬시스템을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 COP6에 대비한 물밑 논의 활발

○ 제 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 마지막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계 30 개국의 환경부장관들이 비공식 회의를 가짐

- 장관들은 이번 회의가 주요 이슈에 대한 협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회의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앞으로 약 4주 후에 열릴 제 6차 당사국총회(COP6)의 개최국인 네덜란드 환경부장관의 주제로 5일까지 이틀 간 네덜란드 뉘덴에서 개최되었음

○ 그러나, 각 국 대표자들은 각 이슈에 대한 異見을 줄인 것에 만족함

- 회의 결과 각 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산림과 같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를 어떻게 산정하며, 규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
  - 대부분의 EU 국가와 집행위원회는 이산화탄소 흡수원 산정에 있어서 과학적 기반이 미약하며, 실제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감축없이도 교토의정서의 배출 저감 노력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흡수원 도입에 매우 신중한 입장임
  - 반면,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는 강력하게 흡수원 도입을 원하고 있음

○ 그린피스는 특히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교토의정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함

-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는 1990년 이래 약 12%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캐나다는 13%, 미국은 11.5%, 네덜란드는 8%씩 각각 증가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1990년 이래로 무려 16.9%가 증가하였음
- 다른 지역에 비해 서유럽국가에서는 경제의 침체와 오염산업의 이전 등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많이 감축됨
  - 1990년 대비 독일은 15.5%, 영국은 12.5%를 각각 감축하였음
  -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멈추고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음

(현대환경연구소, Eco-Brief, 2000년 24호)